

조계종 법계위 “법계 심사 더 철저하게”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 문제로 한국사회가 법집을 쏘아놓은 듯하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검증시스템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가동됐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이 스님들의 법계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해 주목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는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 열고, 법계 심사 시 모든 대상자들이 징계경력증명서와 분가하기 전 원적이 포함된 호적등본, 전과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계위원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경력을 확실하게 살펴겠다는 뜻이다.

법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신임 원로회의 의원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건이 상정되자 회의 참석자들은 특별전형 대상자들의 사미계 수치 후 징계 자료 제출을 호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종헌준법

징계경력증명서 제출 등 검증 강화 원로의원 추대 종헌 개정 요청도

에도 본인 이외에 징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법계위원 전원은 “현 상태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데 동의하며, 법계 심사시 각종 검증서류를 제출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임 원로회의 의원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시켰다.

따라서 이번엔 선출된 원로의원 중 사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종사 법계를 폄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는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큰 죄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일컫는다.

원로회의는 지난 4월 제29차 회의에서 토론(대각회 이사장), 원명(통도사 방장), 밀운(봉선사 회주),

명선(종곡사 주지), 월서(봉곡사 주지), 혜승(고운사 회주), 정무(석남사 주지), 현해(월정사 회주), 고우(전국선원수좌회 선임지도위원), 법흥(前 송광사 주지) 스님을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또 “원로의원은 대종사 중에서 추대한다”로 종헌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총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종헌에는 “대종사 급에서 추대한다”로 돼 있다.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총회의원 재직자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비구니 명사 법계 폄수자 법계 폄수식을 10월 23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혜은(前 운문사 주지), 정화(前 견성암선원 선원장), 광우(前 전곡비구니회 회장), 정훈(영화사 회주), 묘엄(봉녕사 주지), 지원(금관사 주지), 명성(전곡비구니회 회장) 스님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혜정, 보성, 인환, 종진, 설정 스님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질서의 기본이다. 모든 법계 폄수자는 종단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갖는다. 법계는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정이 수여한다. 그러나 법계1급인 대종사는 특별전형에 한한다. 비구법계는 1급 대종사, 2급 종사, 3급 1종덕, 3급 2대덕, 4급 종덕, 5급 견덕으로 구분된다. 비구니법계는 1급 명사, 2급 명덕, 3급 1현덕, 3급 2해덕, 4급 정덕, 5급 계덕으로 나뉜다.

법계위원회의? 법계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폄수, 특별전형, 포상법계 등을 관장하는 기구다. 법계폼수를 위한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계폼수를 사정하고 그 시행을 관장한다. 대종사 및 종사의 특별전형 대상자를 확정된 후 이를 총무원에 통보한다. 또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행복 법차로 사랑 나눕니다”
웅진코웨이(사장 홍준기)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토사랑 행복법차 기증식’을 열고, 1톤 냉동 법차 5대를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에 기증했다. 법차는 사회복지관 5곳에 배치돼 무료급식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기증식에 참여한 문대골 목사(한국기독교교장로회 총회)와 강명순 목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남 스님,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재일 신부(성공회 푸드뱅크). 글/사진=박재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십시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인팩(A4지)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지관 스님 “학력위조 아니다”

“불교계 이력 인정받아 특별전형으로 마산대 편입” 해명

학력위조 논란 여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에게도 미쳤다. MBC는 9월 1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관 스님이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대학에 편입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대학졸업장을 자격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산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지관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설립했던 마산대 3학년이 특별전형을 통해 편입학했다”며 “편입학 시기에 즈음해서 마산대로부터 불교계의 수행이력과 불교 교육기관(통도사,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이수 및 교수 경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편입학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관 스님에 따르면 편입학 과정에서 해인

사 불교전문강원 이수 및 강의경력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마산대에서 특별사정을 통해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통지를 받아 학교에 등록했다. 또 편입한 뒤 주일에는 이들은 마산대에 강의 받으러 갔으며 졸업했다는 것이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학력문제가 발생해 당시 문교부와 안기부까지 나서 한바탕 나리를 쳤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관 스님은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 창피스럽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대 학적부와 관련 총무원은 “학적부에 3학년 편입학 이전의 학력 기재사항은 지관 스님과 무관하게 당시 마산대 담당자가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지관 스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BC 보도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



은 지관 스님의 마산대 졸업증명서를 공개하며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 “그 동안 능력이 부족해서 매끄럽게 종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장운 스님과 만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관 스님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현안 해결 대책기구 동국대 문제 등 주요 의제로

조계종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기구는 9월 12일 조계사 인근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의제와 소위 구성 등을 결의했다. 대책기구는 이날 모임에서 △동국대 문제 △종단 주요 문제 사찰 △종책 · 종법 ·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대책기구 위원장에 중앙총회의장 자승 스님을 당연직으로 추대했다. 간사는 양진수 중앙총회 사무처 팀장. 대책기구는 영담, 지홍, 수현, 장적, 항적, 성직, 현문 스님 등 7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대책기구는 오는 11월 정기중앙총회까지 결과물을 도출하고, 중앙총회 의장 스님이 개원 인사발령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는 9월 19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추석 연휴 신문 배송 안내

본지 647호는 9월 21일 제작하여 22일 정상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추석 연휴 업무 정체 관계로 독자여러분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휴 관계로 648호는 10월 6일 발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1팩 스 031)387-5409
후대문 010-7504-4521 (당첨해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이석진 변호사)

고품질 정수 발효식물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술이 오르지 않고 참 맛의 익성을 섭취하는

❖ 산사 참울 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서 054-373-3166
일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승희)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등 승강 장치(등포 조경 작업) 연등 자등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도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촉접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문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시초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인등 · 주름등 · 전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